

# 10여년 경쟁·협력 올드보이들 상생의 정치 이끌까

뉴스초점 / 이해찬·손학규·정동영의 인연과 정치행보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 2007년 대권 도전했던 3인 당대표로 다시 정치 전면에 정계개편 등 역할 모색...2022년 대선주자 가능성 주목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찬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눈길을 끄는 이들은 단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3인이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함께한 자리였지만 이들 3인의 정치역정과 향후 경쟁 관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인의 인연=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이하 존칭 생략)는 오랜 기간 경쟁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우선 3인은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결과는 1위 정동영, 2위 손학규, 3위 이해찬이었다. 하지만 정동영은 대선에서 패하고, 손학규가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표가 돼 당을 추스렸다. 이때 이해찬은 '한나라당 출신이 당 대표가 됐다'며 탈당했다.

2010년 10월 민주당은 새 대표를 뽑았

다. 손학규·정동영·정세균 등이 나선 전당 대회에서 추천에서 돌아온 손학규가 1위를 했다. 2위는 정동영이었다. 2011년 4월,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기세를 올린 손학규는 2012년 대선을 겨냥, 범야권통합을 했다. 이 무렵 이해찬이 돌아왔다.

이들은 2012년 대선까지 함께 있었지만 2016년 총선을 전후해 흩어졌다. 이해찬은 탈당 후 복당하며 민주당에 남았지만 손학규·정동영은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그랬다가 울초 바른미래당 창당에 정동영은 반대하고 손학규는 찬성하면서 다시 갈라섰다. 이 긴 여정을 거쳐 세 사람은 여야 대표로 다시 만났다.

◇눈 앞의 경쟁=우선 다당 체제 아래서 3인은 당 지지도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해찬은 조금씩 빠지는 지지율을 되돌리기 위해, 손학규·정동영은 좀처럼 뜨지 않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야 한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정쟁이 하나 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손학규·정동영이 다당제의 수혜로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만큼 이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벌써 들은 선거제 개혁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공세에 직면할 이해찬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받은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3인 간의 각축전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점치기는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될 경우 3인은 2020년 총선을 전후한 정계개편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을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은 정부의 성공을 위해, 손학규·정동영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정계개편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다만, 3인이 한 자리에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선에서 다시 만날까=총선이 지나면 2022년 대선 정국으로 들어선다. 3인이 이 때까지 정치력을 유지할 경우 다시 한 번 대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두가 대선에 나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 사람 모두는 일단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현 상황에서 대선 얘기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탓이다. 이해찬은 20년 정권 유지 목표 내세우고 당을 이끌고 있다. 손학규·정동영은 당의 부활을 목표로 내세우며 선거제 개편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세 사람이 대선에



친서 들고 방북 정이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방북한다. (오른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이용 국가안보실장, 서울 국정원장, 김상국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나설 수 없으려면 우선 당을 제대로 세우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대선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신진 세력의 거침없는 도전을 이겨낼 경우 세 사람은 15년만에 또다시 대권을 향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남북·한미 연쇄 정상회담 문대통령 중재외교 결실볼까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9월 연쇄 정상외교가 가시화함에 따라 북미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대북특사 파견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오는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 계기에 한미 정상 간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북측과 일정을 조율할 남북정상회담은 이달 중순께 열리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한미정상회담은 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커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5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쪽으로 순서가 잡히더라도 북미 협상을 중재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전선언과 핵 신고 등 비핵화 조치의 실행 등을 놓고 북미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대북 특사단은 북미가 만날 '중간지점' 찾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안았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경의선 철도연결 등 남북 간 경험 진전은 비핵화 진전이 없이는 본격 추진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결단을 촉구하고, 미국을 상대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는 동시에 중전선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일은 고난도의 '다차원 방식'이라는데 이견이 거의 없다.

특히, 북미가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과 '기대'의 거품이 빠진 상황에서의 중재외교는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대좌하도록 만들 때까지의 앞선 중재외교보다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재외교의 초점은 일단 발표까지 됐다. 그러나 순서가 잡히더라도 북미 협상을 중재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전선언과 핵 신고 등 비핵화 조치의

# 광주·전남 단체장 절반 이상 검찰 수사 중

### 29명중 16명... 당선무효 속출뎀 재보선 비용 수십억

민선 7기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일부는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13지방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를 속에서 치러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탓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거사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경우, 수습위원회에 달하는 형세가 재보선 비용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5일 지역정가와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체장은 15명,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장은 1명이다. 광주·전남 단체장 2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 낙마하는 단체장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민선 6기에서는 노회용 동구청장, 김철주 무안군수, 박철환 해남군수, 이윤부 보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했다.

특히 6·13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 중 2명은 이미 결실공판까지 끝나고 선고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경선에 앞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실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윤형 함평군수도 자신의 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

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김구정 장은 다음달 1일, 이 군수는 오는 17일 선고공판이 예정돼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나머지 13명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를 유출, 신년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대석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아 최근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주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낸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돼 각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동평 영암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정현복 광양시장은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충근 화순군수도 선거구 민과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재보선선거를 치러야 하고 행정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민선 6기 동구청장 재선거에만 6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재·보선 선거비용이 67억여원에 이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 일본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사행: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 휴일 연휴 가족, 연인과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모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21실 기준), 1억원 여행저보증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오 드라이프 망고) & 코코넛 비누 1SET(포함)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00페소/1인당) 포함  
• 호텔(다일) 무료강습, 라우리부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열대의 신사, 산페드로세 또는 마탄성당, 마탄수리안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핑투어(세부도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행이 다르니 문의 바랍니다.

###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근: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보통 기일(여행비용: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관광 및 무료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 기일 결제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단체,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박명, 각각 비자(비행)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